

다산포럼

아픔을 알리는 기록의 힘



유지나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가

“오늘 밤 우연히 라디오를 켤 때/ 당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잊은 줄 알았는데/ 잊혀졌다 했는데/ 당신은 노래를 만들었네요 ...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 노래를/ 하고픈 말이 있어도 ... 추억은 남아있잖아” (‘부르지마’, 김복경 작사·작곡)

해질 녘 라디오를 켜니 이 노래가 나온다. 라디오 듣기는 내 취향이니, 우연히 라디오를 켜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켜자마자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걸 따라 부르노라니 우연의 필연적 효과란 생각도 든다. 영화 ‘택시운전사’(2017, 장훈)를 보고 온 후라 더욱 그럴 것이다. 지난 며칠간 따라잡은 영상활동가 박종필의 다큐멘터리들도 연상 효과로 오버랩된다. 옛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그건 오히려 기억의 힘을 기르는 방어법적 주문처럼 들린다.

‘택시운전사’는 광주민주화투쟁을 외부

큰길 막혀도 셋길 있기에

계엄령 상황에서 광주 전화는 끊기고, 진입로도 모두 막힌 상황에서 셋길 효력이 극적으로 발휘된다. 통제는 군인에 게 경계를 붙이고 ‘총성’을 외치며 애국 국민임을 과시하는 만성은 때때로 광주 행을 포기하려 든다. 그때마다 돈독 오른 그의 성향을 알아챈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는 “노 광주? 노 머니!”를 외친다.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를 외치는 만성의 단어 중심 영어 대사는 심각한 상황을 완화시키는 코믹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연한 셋길 발견으로 광주에 진입한 만성은 특이한 사우디 경험을 자랑한다. 그래서 영어도 잘한다고 과장하고, “데모나 하려고 대학 갔나”며 살

기 좋은 나라 탓하지 말고, 사우디 열풍 맞으며 고생 좀 해 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광주 상황이 살벌해지자 홀로 내뻐려 했던 만성의 우연한 동행은 점차 필연적 상황으로 진전된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둘의 관계 양상에 초점을 맞춘 버디영화 양식을 보여준다. 이들 관계는 티격태격하다가 연대 관계로 진화된다.

‘사건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기자’란 피터의 목숨을 건 소명의식과 그 실천을 목격하는 감회, 아픈 현실을 피하려다 진실에 직면하는 만성의 변화가 극적 구성의 핵심이다. 그런 전복적 반전을 보노라면, 훗날 광장이 광주 기억과 연결된다는 감각적 각성이 발생한다.

“병은 소문내야 낫는다”

광주의 아픔을 세상에 알린 기억 속에 광주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위르겐 힌츠페터(Hinzipeter, 1937~2016) 기자의 유품이 망월동 구(舊)묘역에 안치돼 있다. 그런 기록과 기억의 파장이 영화로 만들어져 극장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중이다. 봄비는 극장가 뒤에는 또 다른 셋길도 있다. 그것은 기록의 힘으로 고달픈 여정을 감행하는 독립영화의 길이다. 간암을 앓으면서도 아픈 줄 모르고 진도에서 영

상 기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박종필 감독의 인생 여정이 그 증명이다.

그는 빈곤과 장애 다투 작업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에 이르기까지 길 위에 선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해 온 영상활동가이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만든 ‘거리에서’(2007), 세월호 희생자 수습 작업에 동행했던 점수사 김관홍을 기록한 ‘점수사’(2017) 등...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그의 작품들을 따라잡으며 먹먹해진다. 그가 ‘세월호 3주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망각과 기억’이란 부제를 붙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아픈 건 다 있어버려”라는 말도 있지만, “병은 소문내야 낫는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기억을 기록하는 것은 아픈 걸 소문내는 예술 작업이다. 온몸과 맘으로 카메라를 들고 길 위의 인생 여정에 들어선 그의 유언은 ‘미안하다’이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더욱 미안하게 만들고 떠난 사람... 그가 떠나는 길에 장례위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페이스북)란 메시지가 이어진다. 유튜브로 보는 ‘인권사회장’이 펼쳐지는 공화문 광장을 울리는 ‘잊지 않을게’(공민석 작사·작곡)가 가슴에 꽂힌다. 기록하며 기억하는 영상의 힘을 뜨겁게 느끼는 여름날이다.

교단에서

뜨거운 여사님들



김진구
우산중 교감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일이다. 대규모 집단이 생활하는 단체 급식은 더욱 그렇다. 학교에서도 급식실 관리나 조리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초·중학교는 점심 한 끼지만,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세 끼 모두를 제공한다.

인류 역사의 큰 전장에서 군량미 조달과 운반이 승패를 많이 좌우했다. 수나라 백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수적으로 대적할 수 없어 청야입보(淸野入保) 전략을 썼다고 한다. 들만을 깨우기 비우고(淸野) 백성들을 성 안으로 철수시켜(入保) 수성전을 벌이면서 수나라 군사를 고갈시킨 것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백만 명이라는 병사 수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중 3분의 1이 보급이나 밥을 담당한 병사라고 한다. 창기조칸이 소수의 병력으로 그 넓은 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

던 것은 쇠고기를 육포로 만들어 오랜 기간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군량미 개선에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보급과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동서나 고금을 떠나 중요한 일이다.

조리실에 연결된 우뚝한 알루미늄 환기통이 조용하다. 방학이어서 뿔여내던 열기를 멈추고 폭염 아래 2학기 개학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 중에 한 곳이 급식실이다. 조리실은 열기로, 급식실은 학생들의 관심으로, 요리를 하는 여사님들은 분주한 손놀림으로 달아오른다.

조리실은 수증기, 습기, 열기로 가득하다. 냉방시설이 있고, 대형 선풍기가 돌지만 감당이 되지 않는다. 한정된 공간에 여가저기 푸른 가스불꽃이다. 수백 개의 전(前)이 설설 끓는 기름 속에서 된다. 여기 에다 정해진 급식시간에 맞춰야하는 강박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조리실은 숨막히는 가마솥이다. 지난 중복(中伏) 때 어느 기업 현장 조리실에서 복달임 음식 삼계탕 700인분을 끓이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십 수 명이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일이 발생했다. 학교 조리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일이다.

4교시가 끝나고 학생들이 급식실 가는

소리란 듣고도 오늘의 급식 메뉴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동그랑땡, 돈가스, 치즈뽕볶이 등 입맛에 맞는 식단이면 환호성과 함께 우당탕 뛰는 소리가 복도에 가득하고, 나물류, 고추(고등어 튀김), 조꾸(조기 튀김) 등이 나오면 발걸음이 무겁고 조용하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심이 크고 즉각 반응을 한다.

한때 급식 담당하는 분들에게 급식 만족도를 너무 높여라 애쓰지 말라고 역설적인 부탁을 하기도 했다. 급식 만족도 조사는 위생상태, 친절도, 식단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기에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좋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 여부도 따라 만족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식품관도 교육이라고 본다면 의도적인 식단 편성도 필요하다. 선호도가 떨어지더라도 더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조리실은 책임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있어야한다. 한번은 구청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 하루를 작성하고 조리실 체험을 했다. 오전 7시40분 식자재 검수부터 시작했는데 주로 채류 운반과 과일 꾸미, 배식, 식기 애벌레기를 했다. 그날은 비빔밥이 나오는 날이어서 식판과 함께 큰 식기 수백 개도 애벌레기

를 했다. 빠른 손놀림에도 거대한 물통에 잠겨있는 식판 식기는 끝이 없었다. 배 곯질을 껴고 사들분으로 나누는 작업에 모든 여사님들이 함께했다. 굶은 하나씩 주기가만 하면 된다. 허투루 보았던 많은 것들이 하루 체험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곳 하나 더 낫다거나 어느 과일이나에 따라 달라지는 여사님들의 업무량을 생각하면 식판 앞의 투쟁이 사치처럼 여겨졌다.

엄마가 차려 준 밥상 앞에서 몇 안 되는 가족들도 ‘짜다, 싱겁다, 맵다, 질다, 되다’는 소리가 나온다. 몇 명의 다른 입맛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간혹 배식 봉사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도 훌륭하지만 조리실 체험 봉사는 더 큰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밥맛이 없는 분들은 더욱 그렇다.

지난달 어느 의원이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그 아줌마들이 뭐래,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라고 했다. 그냥 이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낯잡아 갈 수 있는가. 뜨거운 가스불보다 더 뜨거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모두가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니 급식실 여사님들 힘내세요.

社說

국비 확보 위해 8월 한 달 동안 총력전 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지역 현안 및 미래 핵심 산업 대부분이 포함된 광주시는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과 부시장까지 뛰고 있다.

지난주 운장현 광주 시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김중식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관계자를 각각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운 시장의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한 서울 나들이는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차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다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강행군이었다.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한 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운 시장은 국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거나 반영액이 당초 기대보다 적은 13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 사업은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48억 원과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62억4000만 원, 그리고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개설 100억 원 등 모두 551억9000만 원이다.

전남도도 현안 사업 35건의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현재 도시사가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광주·전남 공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지역 현안의 국고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 재정이 넉넉지 못한 현실에서 국비 확보는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한 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8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국고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8월 한 달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손발을 맞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볕더위에 노인·저소득층 죽어나는데

말 그대로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가 하면 밤에도 맑이 출출 흐르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무더위 속에서 밤에 나가 일하던 노인들이 숨지는가 하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사고의 대부분이 노인층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초 폭염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경로당 등 2억3000만 원을 지원받는 한편 교차로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린 텃밭과 도심 정원을 조성했다. 또 축제장·전통시장 등 인구 밀집 지역의 주요 도로에 물을 뿌려 도심 온도를 낮추고 있다.

전남도도 마을회관·경로당·주민센터 등 5500여 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1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을 엠브 방송을 통해 폭염 시 주의 작업 및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가두방송 및 긴급 재난문자를 활용해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홍보 중이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던 지난 5일 오후 밤에서 일하던 구순의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도가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약층의 희생을 막지는 못했다.

시·도는 기존의 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무더위 쉼터가 많으면 뭐하겠는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을 나설 수 없는 데, 통풍도 안 되는 한층막 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빈곤층 등 여름철에도 사회안전망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여전히 많다.

이들에 대한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는 냉방용품 지원이나 주택 지붕 표면 온도를 20도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쿨링 루프’ 사업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주 정치권에서는 정호승 시인의 작품이 화제가 됐다. 한때 같은 식구였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지도부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정 씨의 작품이 계속 언급된 것이다.

추 대표는 지난 1일 ‘문준홍 씨의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씨의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 중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국민의당은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고 국민 품이 기쁨에게, ‘서의당의 태도를 꼬집을 예수’ 등이 있었다. 가수 이동원이 부른 ‘이별노래’ 가사도

그의 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2월24일 트위터에 ‘촛불을 든 백만의 예수를 보았습니다’라며 정 씨의 시 ‘서울의 예수’ 일부를 올리기도 했다.

정 시인의 주목받은 시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치권에서 회자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말로 국민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내기보다는 시인의 품격으로 수준 높은 정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박지경기자 jkpark@

기 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박안수
경제학박사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농업 부문 공약은 ‘농정위원회 설치와 쌀생산조정제 시행, 직불제 확대 개편,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산업재해보험 시행’ 등이었다. 농정 대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과 농민 행복을 실현하고,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역점을 둔 공약이었다.

이같은 정책 등을 실천할 과제로 최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또 ‘고향세’ 신설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선정,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 인사에서 농정 분야 장관을 비롯한 비서관, 진흥청장 등 관련 인사 모두가 남도 출신으로 채워졌다. 전통적인

농도(農道)이고, 농업의 현실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적합한 인사로 매우 바람직한 인사였다고 본다.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 중 농업 분야에 해당하는 현안이 조기 가시화돼 농업인이 행복한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 과제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과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개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여 10개월여가 지났다. 이 법의 총론처럼 시행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선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한 5만원의 상한으로 지난 설 명절에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20~3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행평성 문제는 총분히 인지하지만 선물의 품목 중 1차 산업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반드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행히 새로 취임한 정책 당국자들이 공감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니 다가오는 추석 이전에 개정·시행했으면 한다.

다음으로, 쌀값 안정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쌀생산조정제’이다. 현재 우리의 농업이 여러 작목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농촌 관광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대다수 농업인은 쌀 농사 위주의 가족농에 소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쌀 과잉공급과 소비 부진으로 현재의 쌀값은 10년 전보다 상승은 고사하고 무려 2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쌀 재배 면적 5만 ha를 감축하고 ha당 3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콩 등 타 작목으로 대체 재배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15만ha에 대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덧붙이자면 남아도는 쌀의 시장 격리와 함께 철저한 유통 단속으로 쌀값 안정과 정상적인 가격 인상으로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다. 이는 기대 이상의 소득 보장이 전제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겨우 60%에 이르는 3720만원 정도이다. 대표적인 농도(農道)로 불리는 전남의 경우 제일 낮은 수준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1000만원대로 정체돼 있다.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의 직불금을 높여야 한다. 직불금을 모든 발전물까지도 확대 도입해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재해보장의 확대와 보상이 필요하다. 잦은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재해보장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매년 국가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하지만 농업 부문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농정분야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눈길 끄는 국정과제 중에 일명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신설 추진이 포함돼 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지역의 교육·문화에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듯하다. 고향세 역시 반 강제적인 세목으로 확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기금 조성이 그리 녹록지 않은 않을 것이다.

차체에 그동안 농업인들을 포함한 시민금융인 상호금융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등을 주목해볼면 어떻게 한다.

이들 세제 혜택은 일부 기한이 올 연말로 예정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정부에서 농업과 농업인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으면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월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사회 220-0652	사진부 220-0693	*우편물 발송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